

융합 대학전공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 범죄피해케어전문가양성과정을 중심으로

고은영, 이은아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Development for Curriculum and Coursework Design of Convergence Program of Psychology and Police in College

Eun-Young Koh, Eun-A Lee
Dept. of Psychotherapy, Kyung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심리치료학과와 경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케어전문가과정(CVCS)의 융합 교과목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 심리학과/상담학과/심리치료학과/경찰학과/경찰행정학과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양 학과의 교과목 목록을 작성하고, 양 학제의 교수진의 자문을 받아 교육과정도형안과 3단계별 교과목 목록안을 선정하였다. 둘째, 현장맞춤형 교과목/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 51명의 범죄피해지원기관의 피해자지원/상담/심리치료 전문가들 대상, 적합도와 중요도를 델파이 설문조사하였다. 도출한 최종교육과정은 기본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서 기초과정은 부전공, 심화과정은 복수전공의 학제에 따라 교과목 수를 편성하였다. 기본과정은 각 학과별 5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고 기초과정은 7과목, 심화과정은 4과목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논의와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교육과정, 융복합, 범죄피해, 범죄피해케어, 경찰학, 심리치료학과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n 'Crime Victim Care Specialist(CVCS)' convergence curriculum for psychology and police students in college. First, the courses and the curriculums of counseling, psychology, psychotherapy, police, an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s in nationwide were listed. After consulting with professors from 2 majors, 3-levels curriculum and courses were drafted. Second, for the inputs from the field, a panel of 51 crime victim care/counseling/psychotherapy experts were Delphi surveyed about goodness of fit and importance. The result were following. First, the curriculum were consisted of required, basics, advanced courses. The required course were 5 courses for each department. The basics were for the minors and 7 courses for each. The advanced were for the double majors and 4 courses for each. Finally, the implication and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College Curriculum, Convergence, Crime Victim, Crime Victim Care, Police, Psychotherapy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Crime Victim Care Specialist in Creative Korea, Kyungil University.

Received 17 July 2017, Revised 22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Eun A Lee

(Dept. of Psychotherapy, Kyungil University)

Email: euna@s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대사회는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활성화되고 있는 인재양성체제 중 하나가 융복합 교육일 것이다[1,2,3]. 범죄피해케어전문가과정(CVCS)은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의 지원으로, K대학 심리치료학과와 경찰학제가 함께 만든 융복합 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의 목적과 요구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매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심리치료영역에서 범죄피해분야는 오랜 화두이다.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의 범죄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고위험군으로써, 심리치료의 중요한 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 최근 심리치료영역에서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경찰, 법무부 등)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의 케어와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서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게 요구되던 기존의 직무 내용 및 태도의 성격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은 외상반응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공감하는 것을 훈련받은 정규교육경험이 부재하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케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대리외상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고[4], 따라서 피해자케어도 비효율적이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범죄피해케어전문가는 심리학적 유능성(psychological competency), 즉 '자기인식 및 타인의 정서적 상황 인식을 위한 감수성', '의사소통기술', '위험성 평가능력'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5]. 각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속기관에 따라 우선시되는 역량과 중요도는 다를 수 있으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이 존재한다[6]. 즉, 전문가들의 소속기관, 학제적 배경, 직무, 경력 등은 다양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위기개입 및 상담의 과제(상담 및 심리치료, 평가, 옹호(advocate), 연계(referral), 아웃리치(outreach), 심리교육, 정보제공, 사례관리)를 담당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6,7]. 또한 범죄는 피해자의 모든 일상에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피해자가 피해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심리, 경제, 법률 등에 대한 모든 옹호와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 전문가들간의 팀워크와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8].

이처럼 범죄피해케어전문가가 형사사법계의 일선에서 위기개입시스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인재양성단계에서부터 형사사법적 지식 뿐 아니라 인권감수성과 심리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양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매우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융복합형 범죄피해케어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교육과정은 전무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케어를 위한 직무군들이 먼저 형성되고, 재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케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현존하는 교육과정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산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극복 및 대처하기 위해, 대학전공교육에서 경찰학과 심리치료학의 융복합적 접점을 탐색하고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요청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대학의 경쟁력: 융복합교육

최근 대학의 과잉공급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환경적 요인은 지방대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불가피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특성화사업(CK)에서는 융복합학과에 대한 지원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학과 통폐합 및 융복합학과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교육부의 평가기준과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대학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만 하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학의 또 다른 현실적 화두로, 취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은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고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실무역량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복잡계(complex system)의 특성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는 분과 학문의 전문성만으로 분석 및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융합학제이나, 융합교육은 전문 지식의 깊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혼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지식과 폐쇄적인 학계에 대한 자성, 통합적 인재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융합 학제에 대한 기대 및 활성화에 대한 흐름은 불가항력적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대학 융합교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일부 대학의 사례나[9] 교양교육에 국한되거나[10], 인문·사회계열에 한정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국내 대학 융합교육의 전반적 동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전공교육에 있어 융복합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학생간/학제간의 화학적 융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융복합과정을 구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2 범죄피해자 지원 및 케어

2003년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로 2005년 12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 2014년 개정 및 2015년 시행, 2008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합회 설치, 2010년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스마일센터가 설립되었다. 해바라기 센터는 2004년 여성부가 설립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on-stop)으로 제공한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설립·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학생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06년 이후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 구성된 CARE팀(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위기개입·지원·대응팀)을 특별 채용하여 강력범죄 사건 등 발생시 초기현장 출동 및 위기개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원년’ 선언,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등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케어가 실체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들은 법적·제도적 보호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오히려 해당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재판과정이나 가해자와 언론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11]. 이렇듯 범죄피해지원 및 케어는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케어전문가들은 소속기관, 학제적 배경 등이 다양하지만,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 및 상담의 과제(상담 및 심리치료, 평가, 옹호(advocate), 연계(referral), 아웃리치(outreach), 심리교육, 정보제공, 사례관리)를 공통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6,7].

2.3 범죄피해케어의 교육과정

형사사범의 역사에서 피해자를 절차상의 중요인물로 보거나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및 보호는 아직 논의 중이며 발전하고 있다. 피해자관련 논의는 다양한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이다. 최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월호사건과 같은 재난사건의 피해자까지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피해상황에 대한 범위이다. 범죄피해는 1차 피해(신체/경제/심리적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차 피해는 사건발생 후 형사절차상에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둔감성에 기인하여 일어난다[5,12]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논의는 1차 피해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되었고,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04년(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 케어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13]. 3차 피해는 보호대책 및 체계의 부재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14].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PTSD의 증상은 사건 직후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3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15].

현재 피해자심리요원, 학교전담경찰관, 피해자전담경찰관(여성청소년과, 청문감사실)이 경찰로서 피해자케어의 직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심리학 전공자를 경찰특별 채용하거나 현직 경찰에게 피해자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즉, 경찰로서 자신의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지만 현장실무관련 역량은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자케어라는 직무가 매우 생소한 경우가 많다. 성폭력상담센터,

스마일센터, 윈스톱지원센터 등의 경우, 심리치료 역량은 갖추었으나 사법적 소양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학회나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특강이나 연수 등의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이뤄지지만, 경찰학과 심리학의 융복합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정규교육과정은 부재하다. 정리하자면,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예민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별적 학제에서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추가 교육과 훈련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수요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부족한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제적 목적은 대학 학부과정에서 범죄피해케어 전문교육체계를 갖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피해케어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육과정의 설립취지와 비전, 목표, 핵심역량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와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CVCS교육과정의 목표는 심리학적 유능성(psychological competency)과 사법적 소양을 갖춘 실무형 범죄피해케어전문가를 양산하는 데 있다. 또한 CVCS의 핵심역량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지식 및 인지적 역량으로, 이는 범죄피해케어전문가로서 범죄피해케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이론적 지식 및 일 관련 지식을 말한다[12]. 이 전제를 기반으로, 단일학제에서 논의되어 온 교과목과 교육과정의 개념과 효율성 대신, 경찰학과 심리치료학의 융복합적 접점을 탐색하여 실무적합형 인재양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학제간의 자문을 기초로 융복합 교육과정 초안을 완성하였다. 둘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범죄피해케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전문가 패널이 각 과목의 핵심역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

사하기 위한 델파이 연구법을 선택하였다. 1라운드에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교육 및 학제 전문가 패널에게 분석하도록 하였다. 2라운드에서는 현장 전문가패널들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여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3라운드에서는 현장전문가패널들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학제 전문가 패널에게 각 교과목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3.1 학제간의 융복합: 학제 전문가

각 학제의 자문은 3명의 심리치료학과 교수진과 4명의 경찰학과 교수진들에게 의뢰했다. 경찰학과 교수진은 사법환경 조성, 피해방지대책, 범죄피해지원개발 부문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변호사 등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심리치료학과 교수진은 PTSD예방 및 치료, 중독상담, 폭력예방 및 심리상담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특수이상담 등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상담과 수퍼비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rofessors

	Major	Years of Professor
1	Counseling	4
2	Special Education	3
3	Educational Psychology	1
4	Criminology, Victimology	5
5	Criminal Law	5
6	Police	5
7	Fundamental Law	4

3.2 산학의 융복합: 현장 전문가

설문에 참여한 기관 및 전문가는 전국 해바라기센터(윈스톱지원센터) 18개소의 경찰관/간호사/상담사, 전국 6개소의 스마일센터의 심리지원팀/사례지원팀, 전국 8개소의 지방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전국 21개소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참여자 51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41명이었다. 연령의 범위는 23~69세였고 평균연령은 37세이다. 현장전문가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졸업이 22명, 석사졸업/수료/과정이 20명, 박사과정/수료가 4명, 전문대 졸업 4명,

학력 미기재 1명으로 나타났다. 현장전문가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아동심리, 범죄심리, 교육심리) 23명, 간호학 4명, 법학 2명, 사회복지학 11명, 기타(경제학과, 국문학, 기계공학, 물리학, 미용관리학, 철학, 컴퓨터 공학(2), 행정학, 일본학) 9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경찰서(청) 11곳,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곳, 해바라기센터 16곳, 스마일센터 8곳, 상담센터/여성의 전화 4곳이며, 그곳에서 일한 경력은 3개월~15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다 <Table 2>.

<Table 2> Demographic Data of Field Experts in Crime Victim Care

Categories		N
Gender	Male	10
	Female	41
Age	Range	23~69
	Average	37
Education	College	4
	BA/BS	22
	MA/MS	20
	Ph.D	4
Major	Psychology	23
	Nursing	4
	Law	2
	Social Work	11
	Etc.	9
Job	National Police Agency	11
	Crime Victim Support Center	11
	Crisis Intervention Center for Women and Child	16
	Smile Center	8
	Counseling Center & Hotline	4
Years	range	3mon~15years
	Average	3years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전국의 심리학과/상담학과/심리치료학과/경찰학과/경찰행정학과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케어관련 직업의 채용시험 및 자격증 시험의 필수수 및 시험교과목을 조사하여, 이 교과목들이 양학과의 교과목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였다. 비슷한 교과목명일 경우, 교과목개요와 설명을 참조하여 양 학과의 각 2명의 교수진에게 자문을 구하여 유사교과목인지 판정하여 하나의 교과목으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심리학과(심리치료/상담학과 포함)는 43개 교과목과 경찰학과(경찰행정학과포함)는 총 31교과목을 선정하였다

<Table 3>.

<Table 3> Courses

Psychotherapy/ Psychology/Counseling	Police Administration/Police
Abnormal Psychology	
Adaptive Psychology.	
Adolescence Counseling	
Adolescence Psychology	
Adult & Elderly Psychology	
Career Counseling	Civil Law
Child Adolescent	Constitutional Law
Counseling(Psychotherapy)	Crime in Modern Society
Child and Adolescent	Crime Scene Investigation
Psychological Disorder	Criminal Law(General
Child Development	Principles/Cases)
Clinical Practicum	Criminal Procedures(Case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riminal Psychology
Cognitive Psychology	Criminal Sociology
Cognitive Development	Criminology
Counseling for Special Child	Defensive Tactics
Counseling Psychology	Introduction to Law
Counseling Techniques	Introduction to Public
Counseling Theory and	Administration
Practice	Martial Art
Criminal Psychology	Penology
Cultural Psychology	Police Administrative Law
Developmental Psychology	Police Ethics
Developmental	Police Intelligence Analysis
Psychopathology	Police Investigation(practice)
Experimental Psychology	Police Science
Family Psychology	Police Science(Special Issues)
Group Therapy	Public Security Police
Health Psychology	Security Science
Introduction to Psychology	Special Part of Police Science
Learning Psychology	Studies of Juvenile
Linguistic Psychology	Delinquency
Motivation and Emotion	Theory of Comparative Police
Neuroscience	Theory of Crime Prevention
Organizational Psychology	Theory of Intelligence and
Play Therapy	Foreign Affairs
Positive Psychology	Theory of Private Security
Psychological Diagnosis	Theory of Security and
Psychoanalysis	Traffic Affairs
Psychological Research	Theory of Security Police
Psychological Statistics	Victimology
Psychological Testing	
Psychology of Emotion	
Psychology of Personality	
School Psychology	
Sensation and Perception	
Social Psychology	

2) 전국의 양 학과 교육과정표를 수집하여, 교과목목록을 작성하였다. 교과목 설명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설명과 webpidia에서 설명하는 교과목 설명을 통합하여 정리한 내용을 심리학과 교수진 2명과 경찰학과 교수진 2명이 감수하였다.

3) 본 연구진 2인이 문헌연구와 위의 기초분석자료를 바탕으로, 3단계의 CVCS교육과정 시안을 만들었다. 경찰학과와 심리치료학과의 교수진 5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그 과정에서 양 학제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교육과정의 장·단점, 교과목의 필요성과 중요도, 경찰관특채시험/심리치료관련 국가자격증과의 관련성, 예시사례 등이 공유하고 합의과정에 이르렀다.

4) 현장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과정기준 시안의 타당화 과정: 핵심역량[15]과 교육과정기본 지침을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융복합교과목개발에 대한 타당도를 얻고자, 범죄피해케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각 단계에 대한 개요와 3단계의 과정/과정 설명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각 교과목별 교과목개요를 추가하여 설문참여자들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Table 4>는 설문지에 기재한 CVCS과정에 대한 개요와 3단계의 과정/과정설명이다. 설문문항은 1) 각 교과목이 3단계 중 어느 단계에 적합한지 결정하거나 범죄피해케어과정에 불필요한지를 묻고, 2) 각 교과목의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서열화하도록 요구하였다.

<Table 4> Description of perspectives on CVCS program

Level	Description	Target
Required	Developing sensitivity to human rights to whom not decide Crime Victim CARE as their career 1) As a police officer, developing sensitivity to crime victims' human rights and psychological competency 2) As a psychotherapist, cultivating judicial accomplishments and knowledge	both psychot herapy and police
Basic	developing expertise on Crime Victim CARE and empowering problem solving competency	minor
Advanced	developing expertise on Crime Victim CARE and empowering cre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y	double major

5) 융복합학과 교과목 개발을 위해, 기존 교과목은 아니나 범죄피해케어전문가양성에 필요한 융복합 교과목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학제의 자문을 받아, 트라우마상담, 진술조력, 위기관리, 범죄피해조사의 4

과목을 예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 위해, 핵심역량 연구[6]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융합교과목을 도출하였다.

6) 현장 전문가패널 설문자료는 양적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각 항목별 단순빈도 분포와 백분율을 계산하여, 표본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7)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제 전문가 패널에게 각 과목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이 어떠한지를 각자 분석하도록 하였고,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CVCS프로그램 교육과정 초안

김도연 외(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K대학교 S학과(10년간 융복합교육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킨 사례)의 교육과정 체계를 응용하여, ‘융합기초-전공기초-전공심화-융합프로젝트(현장실습)’으로 교육과정 초안을 작성하였다[6]. 핵심교과목의 범주나 교육과정의 학년별 구분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어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고 교수진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인권감수성 함양과 범죄피해케어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도출된 양학제의 CVCS 교과목과 교육과정안은 <Table 5>와 같다.

이 교육과정(안)의 특징은 교육수요자의 참여수준을 반영한 점이다. 첫째, 기본과정(30학점)은 범죄피해케어전문가로 진로를 선정하지 않은 심리치료학과 경찰학과 학생들이 인권감수성과 사법적 지식에 대한 기초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기초교과목으로 위기상담을 신설하여 추가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케어전문가 기초과정은 범죄피해케어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진로로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혜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셋째, 범죄피해케어전문가 심화과정은 범죄피해케어전문가로 구체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넷째, 현장 유능감을 키울 수 있도록, 범죄피해케어전문가 심화과정 교과목 중 현장실습 I 과 II(6학점)의 이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Table 5> CVCS curriculum original model

Level	Psychotherapy	Police
Required (30credits)	Introduction to Psychology, Abnormal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of Personality, Crisis Counseling Introduction to Law, Police Science I, Criminology, Victimology, Crime Scene Investigation	
Basics (select 7 courses for each major)	Psychological Testing, Psychological Diagnosis, Adolescence Counse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Health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Family Psychology, Group Therapy, Clinical Psychology and Practicum, Counseling Techniques,	Criminal Law(General Principles/Cases), Criminal Procedures I & II, Police Investigation(practice), Police Administrative Law I & II, Police Science II
Advanced	Trauma Counseling, Statement Assistance, Crime victim Crisis management Crime victim survey((select 2 courses) Practicum I & II(required)	

4.2 현장전문가 대상 델파이연구 설문결과

4.2.1 CVCS 교과목의 단계별 적절성

양학제의 교과목을 CVCS교육과정의 각 단계별로 배치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결과는 <Table 6~8>과 같다. 빈도수에 따라 각 단계별 10순위까지의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Table 6> Goodness of fit for CVCS Courses Required (Frequency)

Rank-ing	Psychotherapy		Police	
	Courses	Fre.	Courses	Fre.
1	Introduction to Psychology	28	Police Science (Special Issues)	30
2	Developmental Psychology	27	Public Security Police	29
3	Sensation & Perception	23	Police Ethics	27
4	Cultural Psychology	23	Defensive Tactics	26
5	Motivation & Emotion	21	Police Science	26
6	Positive Psychology	20	Security Science	26
7	Organizational Psychology	20	Martial Art	26
8	Cognitive Development	20	Theory of Security & Traffic Affairs	25
9	Learning Psychology	20	Constitutional Law	25
10	Health Psychology	19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of Private Security	24

<Table 7> Goodness of fit for CVCS Basics level (Frequency)

Rank-ing	Psychotherapy		Police	
	Courses	Fre.	Courses	Fre.
1	Child Adolescent Counseling (Psychotherapy)	29	Criminal Procedures(Cases)	27
2	Adolescence Psychology	25	Studies of Juvenile Delinquency	25
3	Adolescence Counseling	24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22
4	Career Counseling	24	Police Administrative Law	21
5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4	Theory of Crime Prevention	21
6	Counseling Psychology	23	Criminology	21
7	Adaptive Psychology.	23	Victimology	21
8	Counseling Techniques	23	Theory of Security Police	20
9	Child & Adolescent Psychological Disorder	23	Criminal Psychology	20
10	Child Development, Adult & Elderly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Neuroscience	22	Penology	20

<Table 8> Goodness of fit for CVCS Advanced level (Frequency)

Rank-ing	Psychotherapy		Police	
	Courses	Fre.	Courses	Fre.
1	Psychological Diagnosis	27	Crime Scene Investigation	21
2	Clinical Practicum	26	Penology	16
3	Psychological Testing	22	Theory of Comparative Police	11
4	Group Therapy	20	Criminal Sociology	10
5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19	Criminal Psychology	9
6	Counseling for Special Child	19	Theory of Private Security	9
7	Child & Adolescent Psychological Disorder	17	Victimology	8
8	Play Therapy	17	Special Part of Police Science	8
9	Psychological Research	17	Criminal Law(General Principles/Cases)	8
10	Experimental Psychology, Family Psychology	17	Criminal Procedures(Cases), Studies of Juvenile Delinquency, Theory of Crime Prevention, Crime in Modern Society, Civil Law	7

4.2.2 CVCS 교과목의 중요도

양학제의 교과목이 CVCS교육과정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현장전문가들이 답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먼저 상담심리치료학관련 CVCS 교과목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현장전문가들은 상담기법(Ave.=4.6, SD=.68)을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상담심리학(4.4), 상담 이론과 실제(4.3), 임상현장실습(4.3), 심리 평가 및 진단(4.2), 아동청소년 상담과 심리치료(4.2), 심리측정과 검사(4.1), 이상심리(4.1), 발달정신병리학(4), 범죄심리학(4), 심리학개론(4), 아동청소년 심리장애(4)의 총 12교과목이 4점 이상을 받아 가장 중요한 교과목들로 나타났다<Table 9>. 경찰/경찰학관련 CVCS 교과목의 경우, 피해자학이 평균 4.2(SD=.85)로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형사증거법(3.9), 범죄예방론(3.9), 범죄학(3.9), 경찰윤리론(3.8), 형법(각론/연습/총론)(3.8), 수사학(경찰수사론/범죄수사론/사이버범죄수사론/수사학)(3.7), 과학수사론(3.6), 헌법(3.6), 소년비행론(3.6), 법학개론(3.6), 현대사회와 범죄(3.5)의 총 11교과목이 3.5점 이상을 받아 가장 중요한 교과목들로 나타났다. <Table 9>에서 중요도 순위에 따라 20개의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Table 9> Courses importance for CVCS

Ranking	Psychotherapy			Police		
	Courses	Average	SD	Courses	Average	SD
1	Counseling Techniques	4.6	.68	Victimology	4.2	.85
2	Counseling Psychology	4.4	.76	Criminal Psychology	4.0	1.02
3	Counseling Theory & Practice	4.3	.94	Criminal Procedures(Cases)	3.9	.89
4	Clinical Practicum	4.3	.88	Theory of Crime Prevention	3.9	1.02
5	Psychological Diagnosis	4.2	.76	Criminology	3.9	.99
6	Child Adolescent Counseling (Psychotherapy)	4.2	.79	Police Ethics	3.8	1.11
7	Psychological Testing	4.1	.79	Criminal Law (General Principles/Cases)	3.8	.89
8	Abnormal Psychology	4.1	.90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3.7	.97
9	Developmental	4	.96	Crime Scene	3.6	1.10

	Psychopathology			Investigation		
10	Criminal Psychology	4	.91	Constitutional Law	3.6	1.09
11	Introduction to Psychology	4	.92	Studies of Juvenile Delinquency	3.6	.99
12	Child & Adolescent Psychological Disorder	4	.84	Introduction to Law	3.6	.90
13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3.9	.87	Crime in Modern Society	3.5	.95
14	Family Psychology	3.8	.82	Public Security Police	3.4	1.09
15	Psychology of Personality	3.8	.84	Penology	3.4	1.20
16	Group Therapy	3.8	.90	Police Science (Special Issues)	3.3	.98
17	Positive Psychology	3.7	.83	Theory of Security Police	3.3	1.00
18	Play Therapy	3.7	.93	Police Administrative Law	3.3	.97
19	Motivation & Emotion	3.7	.98	Martial Art	3.3	1.13
20	Developmental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3.7	.91, .98	Civil Law, Criminal Sociology	3.3	.90

4.2.3 융복합교과목 개발

양학제 교수진과 현장전문가들에게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CVCS융복합교과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 선행연구 분석[15]과 CVCS핵심역량연구의 결과[6]를 반영하여, 4개의 신규 융복교과목을 개발하였다. 그 교과목은 트라우마상담, 진술조력, 범죄피해조사, 위기관리이다.

4.2.4 CVCS 교과목과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전국 범죄피해지원전문가들의 델파이설문조사를 기반으로 CVCS교육과정 최종안을 도출하였다<Table 10>. 각 단계별 적합도 빈도 1/3이상(17명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교과목들 중에서 중요도 순위에 따라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심리치료학제관련 기본과정은 상담이론과 실체를 포함 총 5개 교과목(중요도 3.7이상)을 선정하였고, 경찰/경찰학관련 기본과정에는 경찰윤리론 등 총 5개 교과목(중요도 3.6 이상)을 선정하였다. 심리치료학제관련 전문가기초과정은 부전공체계에서 요구하는 필수학점에 기초하여 과목수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상담기법을 포함 총 7개 교과목(중요도 4이상)을 선정하였고, 경찰/경찰학관련 전문가기초과정에는 피해자학 등 7개 교과목을 선정하였다(중요도 3.7이상). 심화과정의 교

과목수는 복수전공의 필수학점체제를 따라 선정하였다. Practicum I & II(필수)와 융복합교과목 4개를 포함하여, 심화과정에서 제안하는 교과목은임상현장실습을 포함한 총 4개 교과목(중요도 4.2이상)을 선정하였고, 경찰/경찰학관련 심화과정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교과목은 과학수사론(중요도 3.6)이었다.

경우, 전 교과목이 4개의 역량군을 고루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경찰학과는 경찰을 양성한다는 직업교육의 교육과정의 특성 상, ‘가치 및 윤리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0> CVCS curriculum

Course	Psychotherapy	Police
Courses required	Introduction to Psychology Psychology of Persona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tivation & Emotion Positive Psychology	Police Ethics Criminal Law(General Principles/Cases)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Constitutional Law Introduction to Law
Basics	Counseling Techniques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Theory & Practice Child Adolescent Counseling(Psychotherapy) Abnorma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 Adolescent Psychological Disorder	Victimology Criminal Psychology Criminal Procedures(Cases) Theory of Crime Prevention Criminology Criminal Law (General Principles/Cases)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Advanced	Clinical Practicum Psychological Diagnosis Trauma Counseling Statement Assistant	Crime Scene Investigation Crisis Management Investigation of Crime Victim

4.3 학제전문가 대상 델파이연구결과

양학제의 전문가에게 최종 교과목이 CVCS의 핵심역량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CVCS의 핵심역량은 4개의 역량군, 24개의 역량요소, 54개의 역량지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6], 본 평가에서는 역량군과 역량요소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최종 교과목을 CVCS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분석해 본 결과, 교과목들이 핵심역량의 역량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치료학과의 경우, 기본과정은 ‘지식 및 인지적 역량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전문가기초과정과 전문가 심화과정의 교과목은 전 역량군을 고루 다루고 있었다. 특히 심화과정의 교과목들은 ‘가치 및 윤리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범죄피해케어전문가의 직업교육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경찰학과의

5. 논의

본 연구는 경찰학과와 심리치료학과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범죄피해케어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학제의 전문가와 현장의 전문가집단의 관점을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총 4개의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하였으며, 각 단계별 적합도 빈도 1/3이상(17명이상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교과목들 중에서 중요도 순위에 따라 각 단계별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기초과정은 부전공의 학제에 따라, 전문가 심화과정은 복수전공의 학제에 따라 교과목 개수를 맞춤 조정하였다. 또한, 최종 교과목이 CVCS의 핵심역량(4개의 역량군 및 24개의 역량요소)을 반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에 있어 다변화와 급변화하는 사회추세를 주도할 수 있는 융복합적 인재배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케어 융복합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이는 기본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의 3단계로 구성되며, 기본과정은 각각 5개 교과목(상담심리치료학: 심리학개론, 성격심리, 발달심리학, 동기와 정서, 긍정심리학, 경찰학: 경찰윤리론, 형법(각론/연습/총론), 수사학(경찰수사론/범죄수사론/사이버범죄수사론/수사학), 헌법, 법학개론), 기초과정은 각각 7개 교과목(상담심리치료학: 상담기법, 상담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 상담과 심리치료, 이상심리, 발달정신병리학, 아동청소년 심리장애, 경찰학: 피해자학, 범죄심리학, 형사소송법/형사증거법, 범죄예방론, 범죄학, 형법(각론/연습/총론), 수사학(경찰수사론/범죄수사론/사이버범죄수사론/수사학)), 심화과정은 4개(상담심리치료학: 임상현장실습, 심리 평가 및 진단, 트라우마상담, 진술조력, 경찰학: 소년비행, 현대사회와 범죄, 위기관리, 범죄피해조사)이다.

<Table 11> CVCS Courses Fitting to CVCS Core Competency

Competence cluster	Knowledge & Cognition	Functional										Personal					Value and ethics										
		Crime victim support & care	Thinking Strength	Psychology	Support system	Criminal justice	Agency operation & management	Operation capability	Problem solving	Professional counseling ability	Consultation & referral	Providing information	Basic job performance	Assessments performance	Supporting victims	Empathy ability	Openness	Psychological strength	Self-care	Career passion	Self-reflection & self-development	Emotional stability	Human rights sensitivity	Expert ethics	Social responsibility		
Psychotherapy	Introduction to Psychology	●	●	●																							
	Psychology of Personality	●	●	●																							
	Developmental Psychology	●	●	●																							
	Motivation & Emotion	●	●	●																							
	Positive Psychology	●	●	●											●	●	●	●	●	●	●	●	●	●	●	●	●
	Counseling Techniques	●		●					●	●	●	●	●	●	●	●	●	●	●	●	●	●	●	●	●	●	●
	Counseling Psychology			●					●						●	●	●	●	●	●	●	●	●	●	●	●	●
	Counseling Theory & Practice	●	●	●	●				●	●	●	●	●	●	●	●	●	●	●	●	●	●	●				
	Child Adolescent Counseling(Psychotherapy)	●	●	●	●									●													
	Abnormal Psychology	●	●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	●								●	●	●				●	●	●			●	●			
	Child & Adolescent Psychological Disorder	●	●	●								●	●	●				●	●	●			●	●			
	Clinical Practicum					●		●	●	●	●	●	●	●	●	●	●	●	●	●	●	●	●	●	●	●	●
	Psychological Diagnosis	●	●	●										●										●	●	●	●
	Trauma Counseling	●		●	●				●	●	●	●	●	●	●	●	●	●	●	●	●	●	●	●	●	●	●
Statement Assistant	●			●	●			●	●	●	●	●	●	●	●	●			●			●	●	●	●	●	
Police	Police Ethics	●				●		●	●			●	●	●	●	●	●	●	●	●	●	●	●	●	●	●	●
	Criminal Law(General Principles/Cases)	●	●		●	●		●	●			●	●		●	●	●	●	●	●	●	●	●	●	●	●	●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	●		●	●			●			●			●	●	●	●	●	●	●	●	●	●	●	●	●
	Constitutional Law	●	●		●	●	●	●	●						●	●	●	●	●	●	●	●	●	●	●	●	●
	Introduction to Law	●	●		●	●	●	●	●						●	●	●	●	●	●	●	●	●	●	●	●	●
	Victimology	●	●		●	●	●		●			●	●	●	●	●	●	●	●	●	●	●	●	●	●	●	●
	Criminal Psychology	●	●	●				●	●			●	●	●	●	●	●	●	●	●	●	●	●	●	●	●	●
	Criminal Procedures(Cases)	●	●		●	●	●	●	●			●	●	●	●	●	●	●	●	●	●	●	●	●	●	●	●
	Theory of Crime Prevention	●	●		●	●		●	●			●	●	●	●	●	●			●			●	●	●	●	●
	Criminology	●	●	●	●	●			●			●	●	●	●	●	●	●	●	●	●	●	●	●	●	●	●
	Crime Scene Investigation	●	●		●	●	●	●	●			●	●	●	●	●	●	●	●	●	●	●	●	●	●	●	●
	Crisis Manag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Investigation of Crime Victim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죄피해케어 직무는 오랫동안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요구와 융복합적 직무요구사항이 있어온 분야로, 이에 화답하는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서 개발하여, 범죄피해케어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과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융복합교육과정은 산학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개발된 매우 실체적인 인재를 양산해낼 수 있는 교육과정[17,18]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죄피해케어전문가 교육을 위한 ‘트라우마상담’, ‘진술조력’, ‘범죄피해조사’, ‘위기관리’ 신규 융복합과목을 개발하였다. 범죄피해케어전문가 교육은 단순히 기

존에 존재하는 과목을 통해 교육하는 물리적 융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교과목의 개발은 양 학제에 실제적인 화학적 융합(예, 팀 티칭)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구과정에서 놀라웠던 점은 텔파이연구를 위해 범죄피해전문가를 섭외,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피해현장전문가의 다양성이었다. 현장인력들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수사지원, 법률 조력, 네트워크 형성 등 폭넓은 역할을 전문적으로 갖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선형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19]. 출신학과, 경력, 근무기관 등이 매우 다양한 전문가들이 범죄피해케어라는 융복합적 직무를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전문가별 직무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CVCS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최종 교과목을 분석해 본 결과, 교과목들이 핵심역량의 역량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학제별 특징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찰학제는 경찰이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학과보다는 경찰학과의 교과목들이 대부분의 핵심역량(심리치료역량 제외)을 전 과목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학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것이 화학적 융복합교육과정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대의 특정학과의 융복합교육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를 타 대학이나 타 학제들 간의 융복합과정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의 융복합교육과정개발 사례를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융복합교육과정개발의 공통적 의제를 찾아내어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교과과정전문가가 아닌 학제의 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전공 융복합의 성공적 사례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사회와 학계에 드러냄으로써 보다 많은 전문적인 피드백을 수용 및 적용하여 향후 물리적/화학적 융합학제를 구축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초적인 융합의 형태로 물리적 융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학제의 특성이 다른 양학과의 화학적 융복합과정을 위해서는, 그 형성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양보, 이해(예, 구성원들의 조직문화, 전임교원간의 비율, 리더쉽 스타일 등, 융복합교육의 체제 문화, 교육자 훈련 등)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학제간의 화학적 융복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대학융합교육을 정착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Crime Victim Care Specialist in Creative Korea, Kyungil University.

REFERENCES

- [1] D. Tanner, N. Tanner,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New York: Macmillan", 1980.
- [2] H. H. Jacobs,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Design and Implementation.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250 N. Pitt Street, Alexandria, VA 22314", 1989.
- [3] S. M. Drake, "Planning Integrated Curriculum: The Call to Adventur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250 North Pitt Street, Alexandria, VA 22314", 1993.
- [4] YT Sung,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in the impact of police officers emotional labor on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6, No. 4, pp. 187-206, 2013.
- [5] JM Kim, "12th 2006 symposium : The study on the cultivation of police crisis intervention professional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 12, pp. 3-30, 2006.
- [6] EA Lee, EY Koh,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y model of crime victim care specialis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8, No. 3, (processing), 2017.
- [7] EA Lee, "Trauma counseling model: recovery mechanisms and techniques in three stag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3, pp. 581-602, 2015.
- [8] YS Choi, "Rate and plan of development of crime victims support activities in support center for victims of crime and korean crime victim support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1, No. 2, pp. 111-136, 2013.
- [9] Young-Ju Hur, "A Study on analysis of existing university's convergence education and suggestion for it's developing dire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1, No. 1, pp. 45-79, 2013.
- [10] HY Lee, "Development status of the convergent subject in general education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6, No. 4, pp. 263-292, 2012.
- [11] HJ Park, "A study on the police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 10, pp. 1-11, 2012.

- [12] JM Kim, “An approach to the public official corruption with the view of victimology.”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0, pp. 205-235, 2012.
- [13] HJ Park, H. Lim, “A study on crime victims’ right to stat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9, pp.13-20, 2013.
- [14] Hyung-Man Kim, “Study on the policy for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8, No. 3, pp. 39-48, 2010.
- [15] M. M. Steenkamp, A. Nickerson, S. Maguen, B. D. Dickstein, W. P.Nash, & B. T. Litz, “Latent classes of PTSD symptoms in vietnam veterans.” Behavior Modification, Vol. 36, No. 6, pp. 857-874, 2012.
- [16] JS Park, “The enforcement and future tasks of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Kyung Hee Law Journal, Vol. 48, No. 4, pp. 393-424, 2013.
- [17] HS Kim, “A study on the cooperation for the activation-type curriculum development site clos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0, pp. 59-69, 2013.
- [18] Jung-Hwa Kang,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9, No. 3, pp. 261-271, 2011.
- [19] So-Ra Kim, “ A study o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lan for crime victim support.”,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3, No. 2, pp. 5-17, 2016.

고 은 영(Koh, Eun Young)



- 2011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특수교육) 박사 취득
- 2013년 9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중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상담, 특수교육
- E-Mail : eykoh7@gmail.com

이 은 아(Lee, Eun A)



- 2001년 6월 : Indiana University 상담심리학과(이학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박사)
- 2011년 2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트라우마, 중독, 진로
- E-Mail : euna@snu.ac.kr